



2009년 1월에 열린 제5차 공동워크숍. 간행위원회는 28차례의 회의와 5차례의 워크숍, 수많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2011년 7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경번역회서 조계종 前총무원장故지관 스님과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함께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본을 부처님께 봉정하고 있다.



2012년 6월 최종 완간된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본(위)과 영역본(아래).

“서구에 학문적 담론 제시” 역경 대작불사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 5년 과정과 의미

“빛을 감춰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옷 속의 밝은 구슬(衣內明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간행 사업은 독해할 수 없는 고전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회복하는 번역 대작 불사입니다.”

2009년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가 주최한 제5차 국제워크숍 입제식이 열리고 있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지관 스님은 참석 간행위원과 영역자, 대중들에게 <한국전통사상총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이로부터 3년. 지관 스님의 마지막 원력이었던 <한국전통사상총서>가 지난 6월 최종 완간됐다. 2006년 12월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5년 6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발간비용도 국고 27억원과 자부담 3억원이 투입된 대작불사다.

길어 보이는 일정이었지만, 정작 한글역과 영역 담당자들에게는 잘나 같은 시간들이었다. 한국 150여 고승의 320여 종 문집이 고전 한문 형태로 수록된 <한국불교전서>에서 90여 종의 문집을 선별 번역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30일 첫 간행위원회 회의가 열려 주요 번역대상 저술을 선정했고, 이후 27차례 회의를 열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각 실무위원회 회의는 총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 없이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오가며 국제 워크숍도 5차례 열렸다. 2007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제1차 워크숍에서는 한글과 영역 편집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차 워크숍은 일본 동경 불교전도협회관에서 ‘영역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에서 열린 3차 워크숍(2008. 1. 23~27)에서는 ‘다자간 번역시스템’의 문제점이 논의됐고, 미국 워싱턴과 하버드, 예일대에서 진행된 4차 워크숍(2008. 5. 13~17)에서는 영역 교열과 윤문자 섭외와 영역출판사 선정이 이뤄졌다.

2010년부터는 영역 편집회의가 수차례 진행됐다. 영역 편집회의에는 주요 영역자인 로버트 버스웰(美 UCLA), 찰스 몰러(日 동경대), 존 조르겐센(前 그리피스대)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전문가들로 잘 알려진 청안원의 이방인들은 매년 학회 참석차 1~2회 방한했고, 간행위원회는 이들 일정을 조율해 회의를 진행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연구 행정을 담당했던 권기찬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적인 회의만 28차례, 국제 워크숍 5회가 열렸다”며 “E-mail을 활용한 주요 번역자간 논의 과정도 많았고, 각 팀별로 진행된 회의도 수도 없이 진행됐다. 이런 수많은 논의 과정들이 이번 총서의 최대 특징인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전통사상총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통해 고대 역자(譯者)를 복원했다는 데 있다. 그간 번역은 번역자 1~2인에 의존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어 왔다. 하지만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한글역자와 영역자 간 교차검토와 검증은 거치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

영역 윤문을 총괄했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교차 번역과 검증 과정을 통해

지관 스님 역경불사 발원
한·미·일 오가며 워크숍·회의
다자간 번역시스템 역자 복원
30억원 투입...전문가 42명 동참
버스웰 “지관 스님께 감사”
한글본 세계 313곳 도서관에

한 다자간 번역시스템 안에서 5년 만에 한글역과 영역을 완성시킨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지관 스님이 원력을 세운 일을 후대 총무원 집행부가 연속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영역본 완간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초석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 불교를 연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불교에 대한 기초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한국불교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전통사상총서>한글역은 국제 교류협력재단의 점수를 통해 전 세계 313개 주요대학 도서관에 배송됐으며, 영역은 그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간행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현 간행위원장)은 완간사를 통해 “한국전통사상총서 완간은 1천7백년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 전통이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는 중차대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며 “향후 한국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진면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영역자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도 “<한국불교전서> 중 대표 고승의 문집을 선별한 <한국불교사상총서>영역본이 영어 불교경전을 발전시키는데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집의 고승들은 티베트, 중국, 일본 불교처럼 주요 연구 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서구 불교학자들에게 신선한 학문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버스웰 교수는 “당대의 뛰어난 승려이자 학자였던 지관 스님은 총무원장 임기동안 <한국전통사상총서> 편찬을 최초로 계획하고 진두지휘했다. 그런 스님이 총서의 최종 완간을 보지 못하고 임직해서 안타깝다”며 “평생 불교학 연구에 매진한 지관 스님의 업적으로 한국불교를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불교학도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전통사상서 간행 번역팀

팀 현황	담당 역주시	팀장 및 영역자, 팀원
제1팀	원효, 지눌, 화엄1	팀장: 해주 스님(동국대) 영역: 박진영(美 아메리칸대), 로버트버스웰(美 UCLA), 찰스 몰러(日 동경대), 샘 베르메르슈(서울대), 리처드 맥브라이드(美 하와이대) 연구원: 승원 스님, 수정 스님, 경진 스님, 정현 스님, 박서연, 임상희, 최원섭, 박보람
제2팀	휴정, 공안집1·2, 선어록	팀장: 김영옥(가산불교문화연구원) 영역: 안준영(美 미시건대), 존 조르겐센(前 그리피스대) 연구원: 조영미, 한재상
제3팀	화엄2, 제교학, 문화	팀장: 정병삼(속명여대) 영역: 메튜 웨지하우트(美 미시건대), 마이클 핀치(계명대) 연구원: 라정숙, 옥나영
제4팀	시선집	팀장: 이진오(부산대) 영역: 박영의(충남대) 연구원: 원항미, 김춘호
제5팀	계율	팀장: 원철 스님(법주사 강사) 영역: 찰스 몰러 연구원: 원창 스님, 영덕 스님, 행오 스님, 성해 스님
제6팀	한국고승비문집	팀장: 교육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영역: 김정국(前 동국대), 패트릭 올만(금강대) 연구원: 신선해, 방정란
제7팀	영역교정 및 감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정덕 스님(중앙승가대), 일미 스님(美 듀크대), 로데릭 윌렛드(美 런던대)

한국전통사상총서 목록

총서	역주	역주 경전, 고승 저술
권1 원효	해주 스님	<진역화엄경소사>, <무량수경경요> 등 17편
권2 지눌	해주 스님	<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 <원돈성불론> 등 7편
권3 휴정	김영옥	<청허당 행장>, <선가귀감>, <선교결> 등 5편
권4 화엄1	해주 스님	화엄일승법계도·법성계 주석 모음 등 7편
권5 화엄2	정병삼	<해인삼매론>, <대각국사문집> 등 4편
권6 제교학	정병삼	<삼미륵경소>, <성유식론학기> 등 6편
권7 공안집	김영옥	<선공공안선화>
권8 선어록	김영옥	<선각어록>, <백운어록> 등 4편
권9 시선집	이진오	<무의자시집>, <호산록> 등 26편
권10 문화	정병삼	<왕오천축국전>, <삼국유사>
권11 계율1	원철 스님	<범망경교적기1>
권12 계율2	원철 스님	<범망경교적기2>, <보살계본종요>
권13 한국고승비문	지관 스님	한국고승비문 15기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입종 안내 ◆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범왕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봉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제1일봉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중사님을 초대대중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선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교육·수행종단·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봉”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봉문도와 일봉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적종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회향 시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총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 전국교구 총무원 ※

- 경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 경북부교구원장 : 지산(통일안국사) ☎ 031-876-2235
-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 전북교구원장 :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 충청교구원장 : 상원(해천사) ☎ 044-863-5582
- 제주교구원장 : 대성(일봉총법원) ☎ 064-702-2328
- 대전교구원장 : 정원(삼성암) ☎ 042-583-1009
- 부산교구원장 : 정일(자광사) ☎ 055-342-3551
- 울산교구원장 : 지운(운지암) ☎ 052-260-4897
- 대구교구원장 : 보각(지장사) ☎ 054-482-1071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총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륵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전승 041)566-6141